

무차선회 현장

사회 : 지환 스님 (조계종 기본선원장)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초청

설선대법회 지상중계 10

삼세의 악한 인연도 동시에 단절

러분은 일천 성인의 이마 위에 일구를 투과하는 그러한 정진 자세를 갖추면, 앉은 그대로 부처님의 지위에 이르는 그러한 정진을 갖추게 됩니다. 바른 진리의 눈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른 스님의 질문이 이어졌다.

“깨닫기 위해서는 도량, 도반, 선지식 등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지 못한다면, 무언에 의지해 공부해야 으릅이 됩니까?”

“세 가지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은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는 인연입니다. 이 광대무변한 진리의 세계, 허공보다도 넓은 진리의 세계에서 밝은 눈을 갖추지 못하면, 몇 생을 어긋나게 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도 ‘무사자오(無師自悟)는 천마외도(天魔外道)’라고 못박아 놓았습니다. 스승 없이 대도를 깨달았다 함은 망녕 중의 망녕입니다. 왜냐면, 허공의 경계는 다함이 없습니까. 동서남북 상하사유(上下四維)에서 넓

문제입니다. 잠을 잘 때는 화두를 어떻게 챙깁니까?”

“참의심이 발동 걸리면 화두가 잘 들립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화두는 흐르는 시냇물처럼 죽 마음속에서 흘러갑니다. 시냇물은 근원이 마르기 전까지 끊겼다가 쉬었다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진리가 발동 걸리면 또는 화두와 참의심이 발동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보고 듣는 분별심 모두가 사라지고, 오로지 화두 한 생각만 즉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잠을 자다가도 영식(靈識)은 화두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꿈을 꾸도 다른 꿈이 안 껴지고 아주 또렷또렷하게 행기는 그 꿈만 흘러갑니다. 이런 과정이 되려면 마음에 사무치는 참의심이 발동 걸릴 때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처사님께서서는 그러한 참의심이 발동되지 않았으니, 마음에 간절히 우러나는 일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진에 몰두하길 바랍니다.”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들과 더불어 정안이 열리면 억만년이 다하도록 부처님 국토에서 부처님과 손을 잡고 복락을 맛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재가불자가 나와 물었다.

“화두에는 1700공안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좌계에서 1700공안이 지금 시집과 거리가 너무 멀어 의심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스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법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스님께서는도 이 시대에 맞는 화두를 생산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저는 마삼근(麻三斤) 화두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스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면, 남너노소를 막론하고 그냥 씩씩합니다. 또 화창하고 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는 참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참나 가운데 모든 진리가 다 있습니다. 부처님도 참나를 알아서 위대한 부처님이 됐고, 모든 도인도 참나를 알고 위대한 도인이 됐습니다. 참나 가운데 모든 진리가 다 있으니, 여러분도 참나를 알면 부처님도 도인도 됩니다. 그러면 무진 법문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골이 어 한 불자가 앞에 나왔다. “저는

리를 하니 허허허. 억! 쉬시고 참나를 바로 알아가지고 한번 찾아오시오.”

통도사 회문 스님이 “출가대중도 지체 청정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재가자들도 도덕적으로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님, 지체청정하지 않고도 대도에 들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대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계(戒)가 근본이 됩니다. 계행이 청정한 그 가운데, 화두를 아주 간절히 들어 정(定)의 일념삼매가 지속되는 경지를 성취해야 합니다. 정이 이뤄지는 그 가운데 출연히 밝은 지혜(慧)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가



무차선 법회 사회를 맡은 지환 스님.

진 공부라 제게는 ‘어떻게 이 세상에 오는지’ 또 ‘나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에 대한 의심과 ‘이렇게 공부하면 제가 과연 참마음을 알 수 있는지’ 이런 의심 속에서 번뇌 망상을 일으키고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제 공부라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중생에게는 전생도 내생도 감각합니다. 인생은 생멸호흡시간에 있어 허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이 자기의 참모습을 내보였습니다. 방 거사의 일가죽처럼 멋지게 벗고 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향상일구를 깨달아 바른 정안을 갖춘 이는 출연시간에 이 몸을 벗고, 진리의 적적삼매를 누립니다. 이 고요하고 고요한 적적삼매(寂寂三昧)를 누리면, 사바세계 삼천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갑니다. 모든 부처님과 도인은 깨달은 삼림삼이에 편안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육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 적적삼매를 누리는 것이 모든 부처님과 도인의 삼림삼이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를 참구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모든 진리가 다 있습니다. 이 ‘참나’를 알면 부처님 국토에 이르고 부처님과 같은 생명을 하고, 억만 년에 다하도록 생사의 고통이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하고 간절하게 화두가 흘러가도록 전력을 다하면, 시절인연이 도래해 출연히 자기 참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때, 산승이 바른 말을 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김철우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한 공안만 타파하면 모든 의심 다 풀려 ‘참나’에 모든 진리 존재...戒는 도의 근본

다넓은 허공보다 더 넓은 부처님의 세계에서 혼자서 알았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혼자서 알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동쪽 허공의 한 부분만을 보고 다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상하사유를 다 봐야 합니다. 그것은 선각자가 아니거나 먼저 깨달은 대선지식이 아니면, 바르게 인도할 수도 바르게 점검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 그 밑에서 바른 참구, 바른 지도, 바른 따먹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광대무변 진리의 세계를 알고자 한다면,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 바른 지도를 받고 바른 참구를 해서 바른 눈이 열리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골이 어 재가불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부산 광안동에 사는 최대각 거사가 질문을 했다.

“화두를 들고 있는데요, 잠 잘 때가 제일

“잠은 자되 꿈이 없고, 깊은 잠에 들어서도 저는 목적을 베고 오른쪽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잡니다. 그 때는 어떻게 마음을 챙겨야 합니까?”

“그때도 진의(眞觀)가 발동 걸리면 즉 흘러가는 법입니다. 그렇게 한번 (화두를) 잘 들어 보세요. 내가 거짓말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이 소림사 신도회장 대원성 보살이 ‘인과법과 참선’의 관계를 물었다.

“재가신도로서 인과에 대한 법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인연을 저희들은 재가 생활자로서 어쩔 수 없이 걸릴 일이 많이 있는데요, 참선을 해서 그 인과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선을 잘 해서 진리의 바른 눈이 열리시면 삼생(三生)의 중생 인연이 직하(直下)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봄바람에 온 산하의 눈이 일시에 녹아지듯이 진리의 눈이 활짝 열릴 때 삼세 업이 다 녹아서 없어지고 모든 악한 인연도 동시에 단절이



동해사 조실 진제 스님이 5월7일 부산 범어사에서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의 회향법회로 열린 무차선회에서 한 수좌와 법가연을 하고 있다.

스님, 무엇이 불법입니까?”

진제 스님이 크게 세 번 웃고 주장자를 한 번 내려쳤다.

“그래요. 1700 공안은 도인들이 경성을 하셔서 한 마디를 먼저 놓은 것입니다. 한 공안이 타파되면 모든 공안이 다 풀립니다. 고기 잡은 그물 한 가닥 풀리면 모든 코가 풀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불만조사(千佛萬祖師)가 심성의 고향에 돌아가서 법문을 베풀어 놓았기 때문에 서 온 산하의 눈이 일시에 녹아지듯이 진리의 눈이 활짝 열릴 때 삼세 업이 다 녹아서 없어지고 모든 악한 인연도 동시에 단절이

이름도 없고 성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꺼냈다.

진제 스님은 크게 웃고 “이름도 없고 성도 없다 해도 이 주장자로 한 대 맞아라 되겠네. 억!”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옛날에 사조 도신대사가 삼조 승찬대사한테 법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조 승찬대사가 천불만조사(千佛萬祖師)가 심성의 고향에 돌아가서 법문을 베풀어 놓았기 때문에 서 온 산하의 눈이 일시에 녹아지듯이 진리의 눈이 활짝 열릴 때 삼세 업이 다 녹아서 없어지고 모든 악한 인연도 동시에 단절이

하나라면서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원만히 구족할 때, 부처님과 같은 거룩한 선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자로 오산에 사는 오갑춘 거사가 나섰다.

“1년 전에 공적생활을 마감하고 일반 선원에서 화두를 받고 1주일간 정진을 했습니다. 온몸에 전율과 함께 화두에 대한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지금도 매일 1시간씩 정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

진제 스님 회향법어 전문 이번 신문 부록에 있습니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석온열복대

원칙의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비만과 배가 찬 것은 인명의 근원이 된다. 북한 3대 특산물인 세계 희귀의 금강약물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강력한 열과 생명의 광선이 원적외선 “침”을 갖는 효과가 있어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작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숨만 쉬어도 장수의 노패를 배출, 변비, 복부비만, 소화불량, 만성위염, 어깨, 허리, 무릎 결림 등이 자연 치유된다.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弱體 ※ 생김새 허리통증 완화 ※ 허벅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는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생명의 氣**

속담의 효능 은행석온열복대 가격이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담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운 열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원적외선 “침”의 효과로 자연적 치유되며 뜨겁게 피부에 접촉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저렴한 가격과 사용법이 간편하고 편리한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안고 질병들을 예방하고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덕터 (02)3210-3170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예명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신비의 염주 북한산 금강염주

소원 성취 척척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北韓産 金剛염주

성물로도 최고 선물에도 최고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 사용하세요.

1set 225,000원

-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 자녀가 있어 고안하고 계신분
-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분
-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 사업이 번창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
- ※ 주식을 할지는 분
- ※ 승진, 퇴원해 고민하고 계신분
- ※ 건강(氣)이 약하신 분

108.12 195,000원
108.순회 160,000원
12.순회 110,000원
108염주 135,000원
12염주 85,000원
은복염주 38,000원

※ 신제품 금강비이오니아 108. 순목염주도 판매합니다.

金剛念珠社 문의전화 : (02)723-0909

직영매장 이화불교사 TEL (02)720-1700,734-1383 (불교용품일체 도.소품)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불법佛法은 의학이다

송담 慈濟 지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로다
- 남양주 봉선사 월운 조실 스님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폐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한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문의 - 법화사(02) 2612-3358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